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6



Contents

※ 2025.04.24.(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4.17.~2025.04.23.)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남해군,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2025.04.17) 1
- 태백 첫 수소충전소 내달 착공(2025.04.17) 1
- 삼척 수소경제 허브 '지식산업센터' 사활(2025.04.17) 1
- 평택시장 "수소·미래차가 새로운 먹거리 될 것"(2025.04.17) 2
-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최적 입지 '울진',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 자리매김"(2025.04.17) 2
- 안산시, 본오동 상용차 수소충전소 운영, 일 150대 충전(2025.04.18) 3
- 수소차 865대 보급 계획 세우고 고작 2%, 눈 속임 하려다 딱 걸린 전남도 환경산림국(2025.04.21) .. 3
- 제주 바이오가스 활용해 청정수소 생성(2025.04.21) 3
-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박차', 수소 트램 들어선다(2025.04.22) 4
-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 5개 기관 MOU 체결(2025.04.23) 4

■ UAM

- 대구, AI·UAM·로봇 미래산업에 4.7조 투입 계획, 국비 확보 나선다(2025.04.18) 5
- 아산시, UAM 산업 확대와 지역 발전 논의(2025.04.21) 5

■ 우주

- 전남도, 우주항공청에 제2우주센터 유치 등 건의(2025.04.17) 6

-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연구인재 양성 앞장(2025.04.17) 6
- 고흥우주항공축제 앞두고 광주·순천서 '우주 팝업쇼' 선포(2025.04.17) 6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서 개최해야"(2025.04.17) 7
-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강민국의원 1호 법안 시행(2025.04.20) 7
-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조기 구축하라"(2025.04.22) 8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KTR, 조선해양·수소 등 울산 산업 고도화 추진...울산TP와 업무협약(2025.04.18) 8
- 표준研-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맞손(2025.04.22) 8

▪ UAM

- 교통안전공단, 'UAM 올림피아드' 대학생 참가팀 모집(2025.04.21) 9

▪ 우주

- 우주항공청, 인공위성 임무에 클라우드 본격 도입(2025.04.17) 10
- 경남TP, '우주항공 트렌드' 정책 이슈 논의(2025.04.17)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그린 공급망' 발굴 위해 탄소 포집-수소 추출 사업 추진(2025.04.17) 11
- HD현대사이트솔루션, 3.5톤급 수소지게차 22대 수주(2025.04.17) 11

- 하이리움산업, 인도네시아에 수소드론등 공급한다(2025.04.17) 12
- 두산퓨얼셀, 수소연료전지 활용해 열병합발전소 전환 나서(2025.04.21) 12
- 사탕수수 찌꺼기와 햇빛으로 수소 생산 기술 개발(2025.04.17) 12
- 부산대-영국 로이드선급협회, 액화수소운반선·초저온공학 공동연구·기술개발 추진(2025.04.17) 13
- 글로벌 에너지 리더 대구 집결...태양광·수소 미래기술 선봬다(2025.04.17) 13
- 충전시간 짧고 진동 적고, 수소 통근버스 늘리는 대기업들(2025.04.18) 13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남해군,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군은 군내 첫 수소충전소인 '남해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지난해 2월 착공해 3월 준공된 이 충전소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운영. 시간당 120kg 수소 충전능력을 갖춰 수소버스 약 5대, 수소승용차 약 20대를 충전 가능 - 남해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품질검사를 통과하고 시운전과 충전 테스트로 안정성 확보. 수소연료는 1kg당 9,900원에 판매되며, 수소차 완충 시 약 5kg에 5만원이 소요됨.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 장충남 군수는 “수소차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청정 환경을 만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전함. 남해군은 군민 수소차 구매 시 최대 3,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
	<p>□ 태백 첫 수소충전소 내달 착공(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시가 지역 최초 수소충전소를 다음 달에 착공 예정. 인근 지역으로 원정 충전해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12월 국고보조금 확보 후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진행.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후 다음 달 착공하며 올해 말 준공 계획 - 태백시는 작년 5월 주민 설명회, 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모, 시·강원테크노파크·OK 자동차 공업사 간 업무협약 진행. 충전소는 통동에 설비용량 25kg 규모로 조성되며, 시간당 차량 5대 충전 가능 - 이용오 탄소중립과장은 “무탄소 청정에너지 도시 이미지 정립과 203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 충전소는 태백시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일환으로 알려짐
	<p>□ 삼척 수소경제 허브 '지식산업센터' 사활(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R&D 특화도시이자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인 삼척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총력하고 있는 상황 - 삼척시는 공모 선정 시 근덕면 수소특화산단에 총 190억 원(국비 121억 원, 지방비 69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상 3층, 5250㎡ 규모 센터를 건립 계획. 창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보육센터, 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등을 갖추고 액화수소 저장운송과 탄소포집 관련 기업 20여 곳을 유치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철기 에너지과장은 “센터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이 1.184로 사업성이 확인됐다”며 “수소 전략사업 핵심 인프라이자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이 센터는 수소산업 허브 역할로 정보교류, 기술집약, 입지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
	<p>□ 평택시장 "수소·미래차가 새로운 먹거리 될 것"(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소와 미래차로 도시의 새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2019년 인구 50만, 지난해 60만을 넘긴 평택시는 청년 인구 증가가 성장 동력임. 정 시장은 “5년간 청년 인구 18.9% 증가는 전국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최고 수준”이라 설명 - 정 시장은 “반도체가 버팀목이지만 다양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소와 미래차 강조. 평택시는 서부권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아우르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 - 정 시장은 “수소경제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겠다”며 “지역 생산 수소를 주택, 공공시설, 교통물류에 활용할 것”이라 함. 또한 청정수소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평택항 인근 발전소에서 청정수소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체계 조성 예정
	<p>□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최적 입지 '울진',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 자리매김"(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 포함 총 10기의 대형 원전을 보유한 세계 최대 원전 지역으로,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 생산 모델을 제시. 2023년 3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6월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 확정돼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2030년 준공 목표로 죽변면 일원 약 152만㎡에 약 4천억 원 투입 예정.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17조원, 고용창출 인원 규모는 약 3만8천명으로 예상. 현재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등 다양한 업체와 입주 협약 체결 - 2024년 9월에는 국토부 제3기 수소도시로 선정돼 400억원을 투입해 수소 인프라 구축에 착수. 손병복 울진군수는 “원전 전기로 생산하는 청정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적이고 현실적 방법”이라며 “산업생태계 구축, 교육 인프라, SOC 확충으로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이자 지방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안산시, 본오동 상용차 수소충전소 운영, 일 150대 충전(2025.04.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산시는 17일 코하이젠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작. 이 충전소는 하루 평균 150대 버스 충전이 가능한 300kg/h급 대형 시설임. 이달 중 원시동 공단삼거리 수소교통복합기지 내 충전소까지 운영되면 시에는 총 4개 수소충전소가 보유 - 안산시는 작년 10월 준공된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를 10km 길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소 생산-이송-활용' 인프라 운용하고 있음. 원시동 충전소는 시간당 120kg 충전 가능해 대형수소차와 일반 수소차 모두 이용 가능 - 현재 안산시에는 수소차 476대가 등록되며, 올해 새로 도입되는 47대 수소버스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수소차 운행에 도움이 기대
	<p>□ 수소차 865대 보급 계획 세우고 고작 2%, 눈 속임 하려다 딱 걸린 전남도 환경산림국(2025.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도의 수소차 보급 계획이 논의 중이며, 도는 올해 411억 원을 들여 승용차 760대, 저상버스 61대, 고상버스 44대 등 총 865대 수소차 보급 계획을 세웠으나, 1분기까지 실제 보급은 승용차 16대, 저상버스 3대 등 19대에 불과해 집행률 2%에 그치는 실정 - 차영수 전남도의회원은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 속도가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들이 수소차 구매를 주저하게 된다”며 충전소 구축과 보급 실적 연계 전략 필요성을 강조 -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수소차 보급 지연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 불편이 없도록 충전소 확충과 함께 보급 실적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충전소 660기 설치를 목표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추진 예정
	<p>□ 제주 바이오가스 활용해 청정수소 생성(2025.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제주도를 공공 부문 사업자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91억 원(총사업비 130억 원의 70%)의 국비를 지원 예정 -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 공급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95% 이상 메탄으로 정제한 후 수소로 전환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하루 4,000Nm³ 바이오 가스로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약 100대 충전 분량인 하루 500kg 수소를 생산할 계획. 환경부는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
	<p>□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박차', 수소 트램 들어선다(2025.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완료 부문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등 연내 첫 추진 작업 시작. 박람회 기간에 맞춰 세계 최초 무가선 수소트램도 선보일 계획 - 용역 예산 25억 원으로 핵심 장소인 삼산 여천 매립장의 시설 기본계획과 토목, 조경, 전기 등이 포함. 돌질산 도시생태축 복원 설계 용역도 함께 진행되며, 부문별 용역 완료에 따라 빠르면 10월 전 일부 공사가 시작될 예정. 태화강역-박람회장 연결 통로 타당성 조사도 진행 - 박람회 기간 세계 첫 무가선 수소 트램이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4.6km 노선을 운행하고, 고래박물관까지는 셔틀버스가 운영. 김규관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은 “수소 트램으로 울산이 수소 도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원 문화, 고래 관광, 수소 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p>□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 5개 기관 MOU 체결(2025.04.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기관과 MOU 체결 - 협약에 따라 부안군은 정책적 지원과 행정 협력을,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 주관과 실증 추진을, 한전KPS는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한전KDN은 통합운영 안전관리센터 구축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배관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실정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수소산업 클러스터화와 기술 실증을 통해 부안 수소도시 조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부안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 선언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강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대구, AI·UAM·로봇 미래산업에 4.7조 투입 계획, 국비 확보 나선다(2025.04.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는 4월 18일 '2026년도 제3차 국비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구미래 100년을 위한 총 4조 7000억 원 규모 대형 투자사업 확정 - 첨단 산업과 시민안전 분야 중심의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해 12월까지 정부와 국회 단계를 아우르는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 - 대구시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국가 AX 연구원 설립(474억원), UAM 시범사업(417억원), BIT 융합 혁신허브 조성(470억원),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1997억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선정. 또한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과 신공항철도, 달빛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할 계획
	<p>☐ 아산시, UAM 산업 확대와 지역 발전 논의(2025.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전략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아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당위성을 마련하고, 단순 교통체계 개편을 넘어 잠재적 산업 전환 기업들을 분석해 UAM 산업 대응에 대한 필요성과 연계 전략 마련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시는 UAM 산업 확대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계획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전남도, 우주항공청에 제2우주센터 유치 등 건의(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운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전남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현안사업 논의 - 특히 발사체 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기존 나로우주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 주기적 연계 가능 등 입지의 장점을 강조. 또한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우주항공청의 정책지원과 공동 협력을 요청 - 김영록 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시대 대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p>□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연구인재 양성 앞장(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2025 국가산업대상' 우주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에 선정됨. 이장우 시장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목표로 'ABCD+QR'로 대표되는 6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그중 우주산업(A)은 미래 전략산업 중 성장성과 파급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가 - 대전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부터 누리호, 달 궤도선 다누리까지 우주 개발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14개 우주 연구기관, KAIST 등 4개 우주 관련 대학, 썬트렉아이, 컨텍 등 88개 우주 기업이 밀집해 있어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인프라 보유. 이러한 강점으로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 - 대전시는 2028년까지 카이스트에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15개 실습실과 46종의 교육용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업해 우수 연구 인력을 육성할 예정
	<p>□ 고흥우주항공축제 앞두고 광주·순천시 '우주 팝업쇼' 선포(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고흥군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특별한 이벤트를 광주와 순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군은 축제 붐업을 위해 4월 20일 광주 유스퀘어와 27일 순천역 광장에서 '우주팝업쇼'를 진행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팝업쇼는 도심에서 축제의 매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고흥 우주항공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람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홍보 프로그램임. 팝업쇼에서는 축제의 상징으로 제작된 대형 우주인 조형물 '나누리 행성탐험대장'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흥겨운 우주인 댄스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축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 - 군 관계자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라며, “이번 우주팝업쇼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고흥의 우주축제를 알게 되고, 가족 단위 방문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함.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로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 예정
	<p>□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서 개최해야"(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가결 - 도의회 경제환경위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돼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 지정한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이 경남에서 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경제환경위원회는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의 경남 개최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의 상징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
	<p>□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강민국의원 1호 법안 시행(2025.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은 공포 7개월 만인 4월 23일부터 시행 - 이 법안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1호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며,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명 찬성으로 확정 -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등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 같은 날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우주항공산업과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기준 설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조기 구축하라" (2025.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2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25차 정기회에서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조기 구축' 제기 -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의 지선으로 연화산JC에서 삼천포항IC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조3954억 원을 들여 연장 18.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 - 이 사업이 조기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한 이래 경남 우주항공 국가 산단 사천지구를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주요 앵커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 연구기간 등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이 시급 등으로 해석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KTR, 조선해양·수소 등 울산 산업 고도화 추진, 울산TP와 업무협약(2025.04.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울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테크노파크(TP)와 협약 체결. 17일 KTR 과천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조선해양, 수소, 국방 등 지역 주력산업 발전과 신산업 육성 지원 합의 - 양 기관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 실증 상용화와 안전관리, 국방 분야 기술개발, R&D 과제 공동 기획, 지역 기업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 수행. 특히 KTR 울산 융복합산업연구소를 통해 조선해양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53개국 네트워크로 글로벌 진출도 돕기로 약속 - KTR은 세계 6대 선급 지정 국내 첫 시험인증기관이며 산업부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주관기관임.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지원과 관련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p>□ 표준研-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맞손(2025.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22일 '수소 산업 표준화 및 안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은 수소 상거래 표준 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립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수소 유량 현장 교정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현장 실증 확대. KRISS는 2020년 수소충전소 유량계 검증 교정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안전성 평가 행정절차로 실증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양 기관은 안전성 시험 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 마련할 계획 - 이외에도 양 기관은 수소 산업 표준화, 수소충전소 복합계량 평가장치 소급성 확보,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예정. 이호성 KRISS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소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소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교통안전공단, 'UAM 올림피아드' 대학생 참가팀 모집(2025.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팀을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10월 29일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TS가 주최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하고 김천시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짐 - 올해 4회째인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들이 UAM(도심항공교통) 분야의 기술과 제도를 주제로 기체창작, 공간정보, 버티포트, 사회적수용성, 전파환경분석, 규제 혁신 등 6개 부문에서 아이디어를 선보임. 대회 참가 신청은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올림피아드 홈페이지(www.KSDUO.or.kr)를 통해 가능 - 부문별 심사에서 최대 10개 본선진출팀이 가려지며, 부문별 최우수상 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 기체창작부문 최우수상은 500만 원, 그 외 부문 최우수상은 300만 원씩으로 총 상금 5100만 원이 마련.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다양한 기술 융합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우주항공청, 인공위성 임무에 클라우드 본격 도입(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은 인공위성 우주 임무에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들과 소통에 나섬. 16일 서울에서 열린 'AWS 스페이스 데이 2025' 행사에 참석해 인공위성 우주 임무와 클라우드 활용 방안에 대한 추진 전략 발표 - 이번 행사는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위성 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클라우드 기반 지상 시스템 가상화 등이 필수 기술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기술의 최신 동향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민간 주도의 위성 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우주산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행사에서는 AWS의 항공우주 및 위성 솔루션 업데이트,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분석 사례, 클라우드 기반 지상 시스템 최적화 전략 등이 공유
지방기관	<p>☐ 경남TP, '우주항공 트렌드' 정책 이슈 논의(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사천 아르떼리조트에서 'K-우주항공정책포럼 2025년 제1차 전략위원회' 개최. 이 행사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K-우주항공정책포럼 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2025년 우주항공산업의 주요 트렌드와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 - 전략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 주요 이슈 발표로 조경석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Opening New Horizons with the Korea-led L4 mission“,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우주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정책 이슈“, 전완기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의 “2025 항공산업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정연석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장의 “AAM 2025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가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진 자유토론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정책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K-우주항공정책포럼은 올해 분과별 전략 수립과 분석, 우주항공산업 정보 공유, 기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의 발굴과 제안에 주력할 계획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그린 공급망' 발굴 위해 탄소 포집-수소 추출 사업 추진(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나시아가 '2025 국가산업대상' 환경경영 부문 대상에 3년 연속 선정. 글로벌 친환경 설비 기업인 파나시아는 ESG 활동, 지속가능 그린 공급망 발굴, 지역 상생 등 사회적 책임 실현 공로를 인정받는 실정 - 파나시아는 해운업 탈탄소화를 위한 OCCS(선상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함. 작년 7월 HMM 등과 함께 2200TEU급 컨테이너선에 OCCS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이 실증사업은 시간당 1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세계 최대 프로젝트로 알려짐 - 파나시아는 청정에너지 암모니아 수소 추출 사업도 추진 중임. 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저장·운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센터 등 적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
	<p>□ HD현대사이트솔루션, 3.5톤급 수소지게차 22대 수주(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한국건설기계연구원으로부터 3.5톤급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22대를 단독 수주. 이 수소지게차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국책과제 2단계 사업에 투입 - 수소지게차는 운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음. 22대 기준 하루 평균 1.8톤, 연간 약 645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9만 5000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임. 미국과 중국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서는 이미 수소지게차가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그로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장은 작년 약 9,758억 원에서 연평균 31.4% 성장해 2032년 약 10조 6,192억 원에 이를 전망
	<p>□ 하이리튬산업, 인도네시아에 수소드론등 공급한다(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수소 전문기업 하이리튬산업이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과 수소 드론, 액화기, 발전기 구매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PLN은 인도네시아 전역 송전탑 점검에 하이리튬 수소연료 드론을 활용할 계획 - 하이리튬산업의 수소드론은 체공시간 1시간 이상으로 헬기나 인력이 수행하던 고위험 점검작업을 안전하게 대체하여, 이 드론은 액화수소와 기체수소를 모두 사용 가능 - 하이리튬산업은 작년 KCL 입회 하에 수소드론 6시간 44분 연속 체공을 인증받아 리튬배터리 드론 대비 10배 이상 비행시간 실증한 실정
	<p>□ 두산퓨얼셀, 수소연료전지 활용해 열병합발전소 전환 나서(2025.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퓨얼셀은 신세종빛드림본부에서 한국남부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에너지자원 유연화 기술협력' MOU 체결 - 이 협약은 신세종빛드림본부 열병합발전소에 두산퓨얼셀과 두산에너지빌리티 기술을 접목해 발전소 효율 향상과 친환경화를 위한 것임 - 작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열병합발전소는 LNG 연료로 전기 630MW, 열 340Gcal/h를 생산. 3사는 최대 40MW 규모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최적 열병합모드 개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자동발전제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함. 또한 열병합발전소 기술 접목 사업모델도 개발할 계획
대학교	<p>□ 사탕수수 찌꺼기와 햇빛으로 수소 생산 기술 개발(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사탕수수 찌꺼기 바이오매스와 실리콘 광전극으로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외부 전력 없이 햇빛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며, 생산 속도는 미국 에너지부 상용화 기준의 4배 수준으로 도달 - 연구팀은 사탕수수 찌꺼기의 푸르푸랄을 이용해 무탄소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구리전극에서 푸르푸랄이 산화되며 수소가 생성되고 고부가가치 물질인 푸로산으로 변환. 양쪽 전극에서 모두 수소가 생산되어 일반 시스템보다 생산 속도가 2배 향상 - 장지욱 교수는 "이 기술로 태양광 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고 화석연료 기반 수소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힘. 이 연구는 친환경 수소 생산의 새 가능성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기여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부산대-영국 로이드선급협회, 액화수소운반선·초저온공학 공동연구·기술개발 추진(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와 액화수소운반선·초저온공학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협약 체결. 양 기관은 액화수소운반선 기술 교류, 액화수소 국제공동연구, 초저온공학 학술 활동 등 협력 체계 구축 예정 - 부산대 센터는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전문 연구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 친환경 선박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 - 작년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의 핵심 과제인 '액화수소운반선 상용화 기반기술 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세계 최대급 액화수소운반선 'Hydro Ocean K' 건조를 총괄 중임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글로벌 에너지 리더 대구 집결, 태양광·수소 미래기술 선봬다(2025.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큐셀, 트리나솔라, 화웨이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함.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하는 이 행사는 26개국 300개 기업, 1,100여 부스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임. 글로벌 기업들이 태양광, 수소, 풍력, ESS 등 미래 에너지 핵심 기술을 선보일 예정 - 세계 10위권 태양광 셀모듈 8개사와 인버터 기업 6개사가 참가해 고효율 셀, AI 진단기술, 스마트 에너지 운영 기술을 소개함. 한화큐셀, 트리나 솔라, 진코 솔라 등 글로벌 톱10 기업과 함께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일강E&I 등 국내 기업도 첨단 기술을 공개 -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소 산업이 집중 조명되며 '제9회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과 '제5회 수소마켓인사이트'가 개최. 김규식 엑스코 사업부사장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 제품 전시와 정책홍보를 넘어 탄소중립, 공급망 대응, AI활용 솔루션 등 에너지 산업의 정보제공과 교류 플랫폼이 될 것"이라 전망
	<p>□ 충전시간 짧고 진동 적고, 수소 통근버스 늘리는 대기업들(2025.04.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버스가 대기업 통근버스를 중심으로 확산 중임. 재계 5대 그룹 주요 계열사 통근 노선에 수소 버스가 운용되고 있음. 삼성전자는 작년 평택캠퍼스 통근 노선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수소 버스 2대 도입 후 수원 디지털시티 노선까지 확대해 현재 20대 이상 운용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수소 버스 보급은 2021년 54대, 2022년 152대, 2023년 368대에서 작년 1,044대로 급증. 누적 1,695대이며 올해 2,000대, 2030년까지 3만대 보급이 목표로 설정 - 수소 버스는 충전 시간 10분 내외, 주행거리 500km로 전기차보다 효율적임. 다만 충전 인프라 부족, 정비 복잡성, 충전소 고장은 숙제임. 현재 상용차 충전 가능 수소충전소는 전국 54개뿐임. SK이노베이션 E&S가 작년 준공한 인천 액화수소 공장 등으로 공급을 확대 중임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